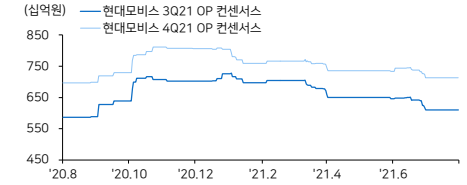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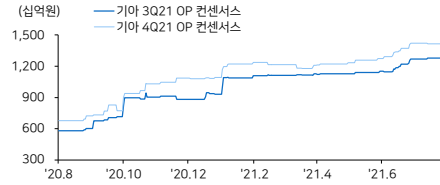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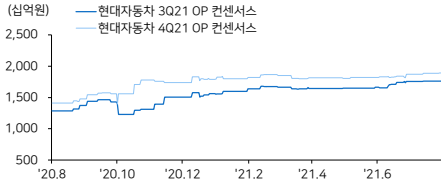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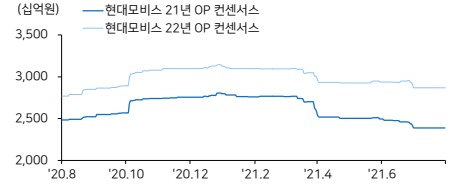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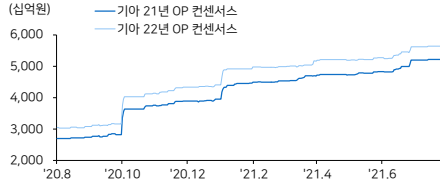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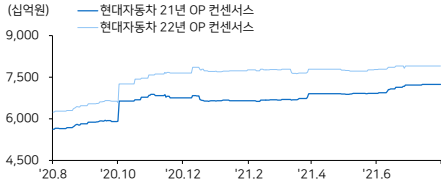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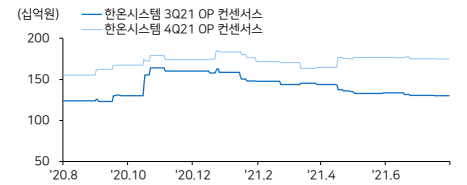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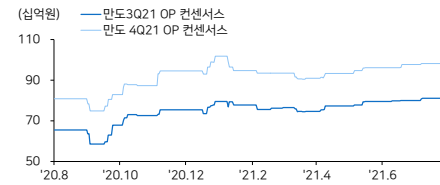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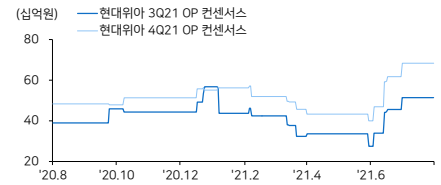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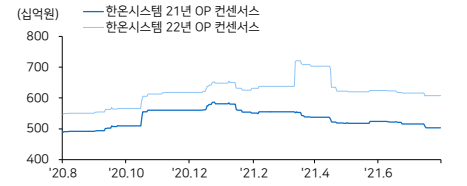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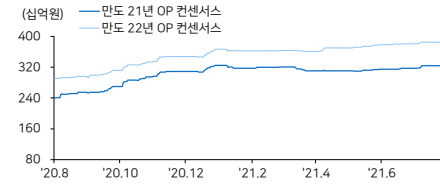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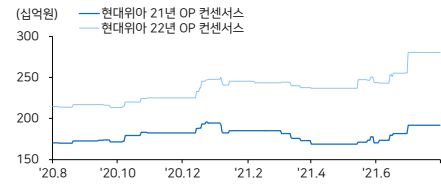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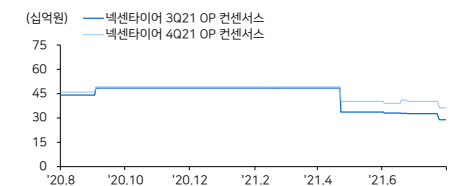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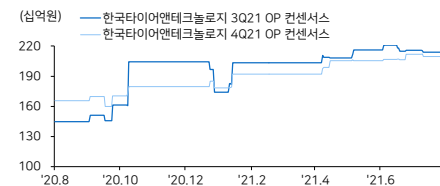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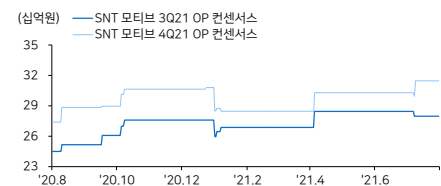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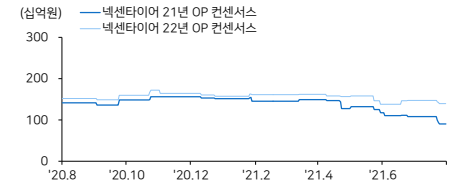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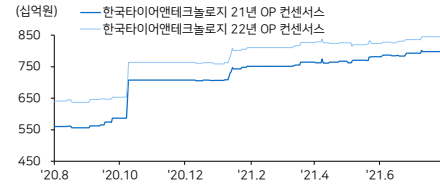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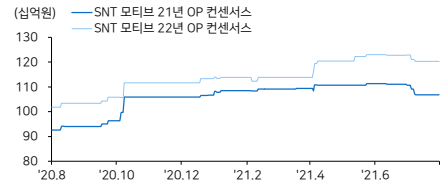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기아, 스포티지 효과에 8월 내수 6.6% ↑ ...친환경차 첫 월 1만대 (연합뉴스)

기아가 스포티지 신차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내수 판매가 6.6% 늘고 친환경차 월간 내수 판매가 처음 1만대를 돌파함. 국내 판매는 작년보다 6.6% 증가했지만, 해외는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차량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1.4% 감소.
<https://bit.ly/3ywmPja>

현대차, 첫 경형 SUV '캐스퍼' 디자인 공개... 가격 1500만원대 (조선비즈)

현대차의 첫 경형 SUV 신차 이름이 캐스퍼(CASPER)로 확정되고 외관 이미지를 공개. 1000cc급 경차인 캐스퍼는 올해 말까지 1만2,000대 생산 예정, 내년에는 연 생산량을 7만대까지 늘릴 계획. 가격대는 고급모델 기준 약 1500만원으로 예상.
<https://bit.ly/3zAWsde>

현대모비스, 1.3조 들어 인건·울산에 수소연료전지 공장 (한국경제)

현대모비스는 최근 1조3216억원을 들여 인천과 울산에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함.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과 연료전지시스템을 제조해 현대자동차에 공급할 예정.
<https://bit.ly/3KsRYwv>

애플, 미국 자동차 주행 정보 제공 특허 획득 (THE GURU)

애플이 미국에서 실외 스크린에 주행 정보를 표시하고 다른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특허를 취득함. 일단 특허를 내며 여러 장기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기술이 애플카에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림.
<https://bit.ly/3mR6J1t>

현대차, 메타버스 플랫폼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 공개 (ZDNet Korea)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 가상의 테마파크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제공한다고 1일 밝힘. 사용자는 가상 세계에서 차량 운전, UAM, PBV,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를 메타버스 콘텐츠로 미리 체험 가능.
<https://bit.ly/2Y50VXB>

현대차, 올해 전세에서 수소차 가장 많이 판매...도요타 제쳐 (뉴스1)

1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7월 현대차가 전세에서 yoy +44% 상승한 5,300대의 수소차를 판매해 51.2%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 도요타는 동기간 4,100대의 수소차를 판매해 40.1%의 시장점유율로 2위를 차지함.
<https://bit.ly/3gP3mEe>

美 전기차 판매, 2024년 내연차 누르는 '골드코스트'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휘발유차를 비롯한 내연기관 차량은 2016년 정점을 찍은 뒤부터 하락세가 심화될 것이며, 순수 전기차는 2018년부터 부상하여 증가세가 심화될 것. 2025년 전기차 점유율을 10%로 전망함.
<https://bit.ly/3zypj1l>

중국 샤오미, 전기차 사업 뛰어들어...1조8천억 첫 투자 (SBS NEWS)

샤오미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자회사인 '샤오미 자동차'의 법인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힘. 자본금은 100억 위안(한화 약 1.8조 원)이며, 샤오미는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힘 바 있음.
<https://bit.ly/2V8GurQ>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